



창조, 지혜, 매혹, 마법, 생명력의 근원...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물의 신과 요정들

물은 문명과 문화 발달의 근본이며 신화 탄생의 원천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물의 신과 요정은 창조·지혜·매혹·마법·공포 등을 의미하며 문학, 음악, 회화, 영화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영감을 주는 소재로 사용됐다.

글 이정은 **참조 자료** 물의 역사(알레브 라이들 크루디어), 물, 자연 그리고 사람(K-water)

신화는 삶과 자연, 초자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영생불멸하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신화 속에는 신비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존재하는데, 여러 신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징 중 하나가 물이다.

서양 문명의 문화와 예술의 시발점이 된 그리스신화에도 물은 신과 영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로 등장했다. 창조와 파괴, 탄생과 죽음, 미와 성적 욕망, 정열과 권력 등 다른 어떤 신화보다도 더 다양하게 표현됐다. 더불어 물은 늘 신비스러운 속성을 상징했다.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고 조절하는 신으로 대부분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신들 사이의 갈등과 친화 관계가 바로 고전시대 우주론의 근간이었다.

예를 들어, 우라노스(하늘)와 가이아(대지)의 아들인 오케아노스는 고대 지리학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었던 강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고대 현인들은 그 강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磁氣場)으로 생각했다. 오케아노스와 그의 누이이자 배우자인 테티스는 원시 세계의 물을 지배하던 거신이었다.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거신들을 몰아내고 난 뒤, 포세이돈이 오케아노스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로마 신화에서 포세이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넵투누스는 원래 상서로운 샘물의 신이었다. 그러다 점차 폭풍을 몰아치는 힘을 지닌 무서운 바다의 신으로 변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Poseidon)** 포세이돈은 그리스신화 속에서 바다, 지진, 돌풍의 신으로 그려진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답게 주로 삼지창(트리아이나)을 들고 물고기 떼나 돌고래 떼와 함께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휘날리며 파도를 타고 다닌다. 태풍처럼 성미가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특하면 다른 신이나 인간들과 다투었다. 그때마다 잔잔하던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래서 포세이돈은 바다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가장 존경받는 신이기도 하다. 포세이돈의 모습은 화려한 분수의 시초가 되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잘 나타나 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분수와 포세이돈을 향해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빈다. 과학의 발달로 물도 물의 신성함을 사라졌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상징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물의 신

네레우스(Nereus)

폰토스(바다)와 가이아(대지)의 아들 네레우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물의 신, 바다의 신으로 에게 해 바다의 요정인 수많은 네레이스를 낳았다. 바다의 신으로 포세이돈보다 나이가 많아 네레우스를 '바다의 노인'이라고 불렀다. 현명하고 온화하며 예언 능력과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네레우스는 자주 변신을 하기도 했다. 선원들이 수호자로 여긴 네레우스는 하반신에는 물고기 꼬리가 달렸고, 상반신은 길게 수영을 기른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 미술 작품에서는 흰 수영에 삼지창을 손에 들고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 위에 올라앉은 모습으로 표현되곤 한다.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Oceanos)

영어로 대양, 강을 뜻하는 단어 'ocean'의 어원은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에서 비롯됐다. 고대 그리스인은 세계를 평평한 원형의 대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케아노스는 이 대지의 끝을 둘러싸고 흐른 커다란 강의 신이었다. 그는 대지의 서쪽 끝에서 테티스(Tethys)와 결혼해 함께 살았는데, 둘 사이에서는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하천의 신인 3000명의 아들과 바다·하천·샘의 요정인 3000명의 딸 오케아니데스가 태어난다. 훗날 오케아노스라는 이름은 지리적 개념으로 변해 지중해의 대륙을 둘러싼 대양을 뜻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한다.

반인반어의 해신

트리톤(Triton)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의 아들로 몸은 상어비늘과 비슷한 비늘로 덮여있으며, 얼굴에는 코가 있지만 귀 아래에는 아가미가 달려있다. 포세이돈과 함께 바닷속 황금 궁전에 살면서 해마를 타고 다니는 트리톤은 해면이 잔잔할 때는 물 위로 올라와 자신의 상징물인 소라고둥을 붙여 작은 물고기와 돌고래 등을 불러서 놀았고,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도 했다. 소라고둥을 든 모습으로 분수의 장식물로 자주 등장하며, 예술 작품에서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옆에 소라고둥을 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신화에서는 부수적인 역할로만 나오는데, 거인족 기간테스가 제우스에 대항할 때 소라고둥을 붙여 진압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모를 찾는 모험을 마친 이아손과 오르페우스 등이 귀향할 때, 호수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을 못 찾자 트리톤이 나타나 아르고호를 바다로 던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물거품에서 태어난 여신
아프로디테

물과 관련된 신들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신은 아마도 사랑과 미의 여신이며 선원들의 보호신인 아프로디테(비너스)일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신화에 따르면 우라노스는 자기 아내인 가이아를 몹시 구박했다고 한다. 아내가 아들인 크로노스를 부추겨 아버지인 자기에게 반기를 들도록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하고 그 정액을 바다에 뿌리고 말았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던 그 정액이 바다의 물거품으로 변했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조개껍질을 열고 나타났다. 미술 작품에서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하얀 물거품이 풍기는 관능성과 파도의 리듬, 그리고 사랑의 체액과 아주 밀접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물의 요정
테티스(Thetis)

많은 미술 작품과 영화에 등장하는 신은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이자 물의 요정인 테티스다. 테티스는 네레우스의 딸인 50명의 네레이스 중 한 명으로 바다에서 자랐는데, 아름다운 외모로 제우스와 포세이돈 등 여러 신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거신인 프로메테우스가 테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제우스는 테티스를 단념하고 대신 그녀는 인간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해 전설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낳았다. 아킬레우스 역시 물과 밀접한 영웅인 것이다. 테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돕기 위해 그리스군 측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영화 <타이탄>에도 테티스가 등장한다.

개천의 요정
나이아데스(Naiades)

나이아데스는 물의 요정으로 연못, 호수, 우물, 개천 등 담수에 살고 있다고 여겼다. 흐르는 물 중에서 작은 개천, 우물의 정령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인은 세상의 모든 물은 하나로 연결됐다고 믿었다. 나이아데스는 자신이 속한 연못과 물의 원천은 연결되어 있어 만약 그 물이 모두 마르면 자신도 죽는다고 믿었다. 나이아데스에게도 물은 소중한 존재였으므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을 보살피는 일을 했다. 대부분의 나이아데스는 동물과 인간에게 우호적이었으나 존 워터하우스가 그린 <힐라스와 님프들>에서 처럼 때로는 위험한 존재로 그리기도 했다.



- ① 오케아노스
- ② 트리톤
- ③ 아프로디테
- ④ 테티스
- ⑤ 나이아데스